

# 이새의 아들인가? 사울의 아들인가?: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삼상 16-26장)에서 본 사무엘상 17장 55-58절

유윤종(평택대)

## 1. 시작하는 말

사무엘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다윗이다.<sup>1</sup> 그는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한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하여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여호와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15:35), 그를 떠났다(16:14). 그 상태에서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섰고, 이새의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을 찾아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다윗은 여호와와 영에 감동되었고, 사무엘은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16:13). 사무엘상 16-31장은 여호와와 영이 떠나버린 사울로부터 여호와와 영으로 감동된 다윗으로 왕위가 어떻게 이양되는지를 보여준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명성을 얻게 되자, 사울은 왕권 상실의 두려움에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 두 사람의 갈등은 사울의 죽음으로

1 사무엘서 전체는 55장이다. 그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약 40장, 즉 72%에 이른다.

일단락된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 왕가와와의 갈등은 계속된다. 다윗은 그 갈등을 잘 마무리하였고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사울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삼하 5:1-3).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17:1-54)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결정적 장면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블레셋에 승리를 거둔다. 이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55-58절에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55절에서 사울은 전쟁 중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는다. 아브넬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대답한다. 56절에서 사울은 아브넬에게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라'고 지시한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자, 사울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는다. 이에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한다. 이 단락에서 사울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 다윗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한다.

이 장면에서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16:14-23에 묘사된 사울과 다윗의 장면을 보아 명백하게 모순된다.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16:19)라고 지시하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임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17:15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헬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는 구절과도 모순된다. 17:31-40에서 사울은 다윗을 직접 불러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낫 투구를 머리에 씌운다. 따라서 17:55-58과 모순 관계를 형성한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

www.kci.go.kr

다. 첫째, 현재 본문을 그대로 두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다윗이 사울의 수금연주자와 무기 드는 자로 활동하다가 오랜 기간이 흐른 뒤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 사울이 다윗을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장은 다윗과 사울이 왕래하였고(17:15),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17:31-39)를 고려하면 타당성이 약하다.<sup>2</sup> 또 다른 주장은 사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는 사무엘상에 자주 나온다(16:14-23; 18:9-12; 19:22-24; 22:6-19).<sup>3</sup> 하지만 사울의 정신이상이 기억력 소실로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는다. 둘째, 역사 비평적 접근이다. 역사비평에 의하면 현재의 불일치를 사무엘서의 저자 혹은 편집자가 다른 자료층을 수집한 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학자는 노쓰(North)이다. 그는 오경의 문서가설을 사무엘서까지 확장해 설명한다. 세 개의 문서인 E(16:1-13), D(16:14-23), J(17장)가 합해지면서 불일치에 대한 수정 없이 현재의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sup>4</sup>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 혹은 편집자가 그러한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설피게 다루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셋째, 현재의 본문을 그대로 놓고 현재의 불일치를 문학적 신학적 기법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버겐(Bergen)은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은 것은 사울이 약속한 내용의 실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2 Victor Hamilton, 「역사서 개론」(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338.

3 Robert Jamieson et al., *Jamieson, Fausset, and Brown's Commentary* (Zondervan, 1961), 985.

4 R. North, “David's Rise: Sacral, Military or Psychiatric?” *Biblica* 63 (1982), 524-44. 고든(Gordon)도 유사한 입장을 피력한다. R. P. Gordon, *1 & 2 Samue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6), 159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17:25). 즉 사울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아 그 집안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sup>5</sup> 그러나 이것은 16:14-23과의 모순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임을 사울은 명백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16:22). 폴진(Polzin)은 17장에 나타난 지시 대명사 ‘이것’(zeh)과 ‘이것들’(eleh)이 자주 쓰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항상 조롱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17:25, 26, 28, 39, 47). 이에 따라 17:55, 56에 사용된 ‘이것’을 조롱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55절)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56절).

폴진은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하였다고 해석한다. 58절에서 사울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한다. 58절에 대해 폴진은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을 잘 알고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을 포기하고 사울의 아들로 선언하기를 요구한 것일까?’라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한다.<sup>6</sup> 유사한 해석은 로톤(Lawton)에 의하여 제기된다. 로톤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다윗의 정체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기를 바라는 질투심의 발로로 해석한다.

‘이새의 아들’은 경멸의 용어이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집착이 증가하면서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이것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내

5 Robert D. Bergen, *1, 2 Samuel* (NAC 7A; Broadman & Holman, 1996), 199.

6 R.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0), 173-175.

라이터는 그의 성격의 보다 어두운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일까? 사울은 이새를 질투하며,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임을 소망한 것인가?<sup>7</sup>

김재구는 이 해석이 왕권을 두고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빼앗을 것인가?’라는 반전의 대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하지만 폴진, 로튼, 김재구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안할 뿐 그에 수반하는 추가적인 연구와 의미를 제시하지 않는다. 필자는 사울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은 다윗이 ‘나는 주의 종이며 아들입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속마음을 읽지 못하고 ‘나는 주의 중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며 사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부르그만(Brueggemann)은 이 단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 반복된 것에 대하여 주목한다. 부르그만은 이 단락을 신실한 다윗과 어리석은 사울의 대비를 통한 긴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한다.<sup>9</sup> 따라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형성된 긴장은 다윗을 아들로 삼으려는 사울과 끝까지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다윗과의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

7 Robert B. Lawton, "Saul, Jonathan and the 'Son of Jesse'," *JTOT* 58 (1993), 41-42.

8 김재구는 사울이 다윗을 알지 못하는 본문의 해석에서 의도적인 전개라고 주장한다. 김재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나, 전쟁의 승리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인생이 극적으로 교차되는 역전의 순간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한다. 김재구는 이 사례를 출애굽에서 '바로-모세', '바로-요셉 및 이스라엘', '나발-다윗'과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한다. 김재구,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사건(삼상 17:55-58)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 「구약논단」 17권 1호(2011), 59-79.

9 부르그만은 17장을 다윗과 블레셋, 다윗과 사울, 야웨의 능력과 블레셋 신들의 능력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는 데 다윗과 사울 사이의 대비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석한다. W.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34.

이 글은 사무엘상 17:56-58과 16:14-23 사이의 모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가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16:14-23과 17:56-58 사이의 모순 관계는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이새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 즉 왕궁으로 데리고 온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치솟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고 둘은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다(18:29). 그 과정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우정을, 미갈과는 결혼을 통하여 사울의 사위가 된다. 사울에 의하여 다윗은 광야로 내몰린다(21장). 사울은 살기를 품고 다윗을 죽이려 추격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24-26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하여 ‘내 아버지여’(24:11)라고 부르며,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24:16; 26:17, 21, 25)라고 부른다. 17:58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를 질문했을 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변하였다. 두 사람 사이의 명확한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대면 장면인 24-26장으로 가면서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로, 사울은 다윗을 아들로 부른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 내러티브에서 몇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 첫째, 위에서 설명한 대로 16:14-23과 17:56-58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다윗을 사랑해 무기 드는 자로 옆에 두었던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친 후 만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다. 둘째, 24-26장에서의 호칭 또한 16:14-23 및 17:56-58과 모순 관계를 형성한다. 대적자를 아버지로 부르고, 대적자를 아들로 부른 것은 이전 본문의 내용과 모순을 일으킨다.<sup>10</sup> 이 글에서 필자는 17:55-58에서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확인

10 부르그만은 24:17-21과 26:5에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태도 완화를 화해가 아니라 전략으로 풀이하며,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의 분노와 적대감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보라. W. Brueggemann, "Narrative Intentionality in 1 Samuel 29," *JOT* 43 (1989), 21-35. 하지만 사무엘상 27장 이후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없고, 다윗에 대한 사울의 감정 표현도 없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소식을 전했지만,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수

하러 했던 사울과 이새의 아들이라는 다윗의 답변에 대해 사울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했다는 폴진과 로튼의 제안을 내러티브 비평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16-26장) 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다윗을 부를 때 항상 경멸적 의미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점과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약속한 포상(17:25)의 중요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 글은 현재의 최종 형태로서의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에 근거하여 내러티브 비평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에 나타난 구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학적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드러낼 것이다.<sup>11</sup>

## 2. 이새의 아들인가? 사울의 아들인가?: 사울과 다윗 사이의 모순과 갈등 분석

### 1) 이새의 아들 다윗(16:18-22)

사울과 다윗의 첫 대면은 16:18-22에 나온다. 이 장면에서 사울은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을 소개받는다(16:18). 사울의 소년(젊은 신하) 중 하나는 다윗을 ‘내가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로 평가한다. 다윗의 삶이 여호와와 함께한다고 평가

---

색하지 않는다(27:4).

11 사무엘상 17:1-18:5에서 칠십인역과 마소라 본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칠십인역 마소라 본문에 비해 짧다. 칠십인역(LXXb)에는 나오지 않고 마소라 본문에만 나오는 것은 17:12-31, 41, 48b, 50, 55-58; 18:1-5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D. Rudman, "The Commissioning Stories of Saul and David as Theological Allegory," *VT* 50(2000), 528-529.

함으로써 16:13에서 언급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확인해 준다.<sup>12</sup> 사울은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지시한다(16:19). 이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사울에게 보낸다(16:20). 이에 내려이터는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그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16:21-22)고 설명한다. 이 단락에서 사울은 다윗이라는 이름과 그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표현한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없다. 사울은 다윗을 깊이 사랑하여 자기 옆에서 무기 드는 자로 삼을 만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sup>13</sup> 사울은 신하로서의 다윗을 깊이 사랑한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인정한다.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이라고 부름으로써 사울은 다윗을 ‘다윗’으로 부른다.

## 2) 사울의 종으로서의 다윗(17:25, 32-36)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 중이었다. 그때 블레셋에서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 이스라엘 장수와 대결을 신청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17:1-11). 이스

12 한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서 내려이터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루아흐 엘로힘)을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루아흐 야웨)을 사용함으로써 다윗에게 임한 영이 사울에게 임한 영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다윗 왕권의 합법성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사무엘, “사무엘서에 나타난 야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구약논단』 22.3(2016), 137-166.

13 다윗에 대한 세 사람의 사랑 가운데 사울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다음과 같다. *wayyē'ēhabēhu m'ōd* ‘그가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이다. 대부분 주어의 ‘그’를 사울로, 목적어의 ‘그’를 다윗으로 가정하여 ‘사울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다’로 번역한다.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은 다음을 보라. G. C. I. Wong, “Who Loved Whom? A Note on I Samuel 16:21,” *VT* 47 (1997), 554-556. 이 글에서는 히브리어 문맥상 모호함이 있지만, ‘사울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다’는 다수의 입장을 따른다.

라엘 사람들은 도망쳤고, 사울은 포상을 약속한다. 사울의 포상 약속은 군인들을 통해 퍼져나갔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었다(17:25). 세 번째 포상은 그 아버지의 집에 관한 것이다. “그(왕)가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호프쉬’(hopšî)를 만들겠다”(25bγ). 히브리어 ‘호프쉬’의 의미는 불명확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세금이나 병역문제에서 혜택을 베풀겠다는 것으로 가문의 위상상승과 관련되어 있다.<sup>14</sup> 이에 다윗이 나타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칭하자, 사울이 다윗을 부른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른다(17:31-32, 34, 36). 사울은 다윗을 ‘소년’이라고 칭한다(17:33).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며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낸다(17:37). 이 장면에서 다윗은 자신을 사울의 종이라고 부른다. 이 장면에서도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3) 사울의 아들인가? 이새의 아들인가?(17:55-58)

이 단락에서의 핵심은 다윗이라는 인물보다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점이 초점이다. 16:18-22에 이미 이새의 아들이 나와 있지만, 사울은 집요하게 누구의 아들이냐를 질문한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자신을 밝힌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사울과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변하는 다윗의 의지가 충돌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답변은 사울과 다윗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

14 이 단어에 대한 아카드어, 우가리트어 관련 비교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 Kyle McCater, Jr., *1 Samuel* (The Anchor Bible 8;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304-305.

며, 갈등의 요인으로 기능한다.

#### 4)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가? 대적인가?(18:1-29)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영웅으로 떠오른다. 전쟁이 끝난 후 사울이 다윗에게 한 약속(17:25)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 사울은 그 약속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 했는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윗도 그 약속의 실현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17:25에서 약속한 부, 왕의 사위, 가문의 위상상승을 사울이 지키려 했는지 알 수 없다. 세 가지 약속 중 왕의 사위라는 지위는 다윗과 직접 관련되어 나온다. 그 과정에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다윗이 사울의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왕권을 둘러싸고 모호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흐른다.

##### (1) 다윗과 요나단(18:1-5; 20:24-42)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 사울은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도록 한다. 사울은 다윗을 아들로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16:21),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자기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18:4).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사울이 자신의 군복, 낫 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던 장면(17:38)을 연상시킨다.<sup>15</sup> 이것은 사울이 가졌던 왕권과 그 왕위를 계승해야 할

---

15 사무엘상 17:38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그의 군복, 낫 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지만, 다윗에게 너무 커서 거절하고 그 자신의 방식대로 막대기와 물매와 돌을 사용해 성공한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도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리를 가진 요나단으로부터 왕권이 다윗에게로 향할 것을 암시한다.<sup>16</sup> 사울이 준 의복은 거절했지만, 요나단이 준 의복에 대해 다윗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다윗은 요나단을 대신해 사울의 아들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나단의 적극적인 활동에 비해 다윗은 철저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는 성공하는 자가 된다.<sup>17</sup>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은 그를 질투하면서 정신적으로 망가진다. 내러티브는 그것을 ‘여호와/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으로 풀이한다(16:14, 15, 23; 18:10; 19:9). 사울은 다윗을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생각해 죽이려 시도한다. 그 결과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이후 대적 관계가 되었다(18:29).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시도하였지만(18:10-11, 25; 19:9-10, 10-17 등)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 요나단은 다윗과 한마음이 되었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18:3).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오지만, 다윗의 감정은 안 드러난다. 이에 대하여 애커만(Ackerman)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보다 우월한 지위의 사람이 열등한 지위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하지만 다윗과 두로의 왕 히람 사이의 정치적 동맹 관계도 사랑으로 표현된다(왕상 5:1). 그렇다면 사울, 요나단, 미갈의 다

16 프로우저(Prouser)는 사울-다윗 내러티브에서 사울은 옷을 벗는 경향을 보이며, 다윗은 그 옷을 입는 자로 나온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옷을 벗고 입는 장면이 사울-다윗 내러티브에서 다윗의 상승과 사울의 몰락을 설명하는 내러티브 기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ra H. Prouser, "Suited to the Throne: The Symbolic Use of Clothing in the David and Saul Narrative," *JOT* 71 (1996), 27-31.

17 Walter Brueggemann, "Narrative Coherence and Theological Intentionality in 1 Samuel 18," *CBQ* 55(1993), 232-233.

18 S. Ackerman, "The Personal is Political: Covenantal and Affectionate Love('AHEB, 'AHABA) in the Hebrew Bible," *VT* 52 (2002), 437-458.

윗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정치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감정이 서로 뒤섞여 복잡함과 모호함을 드러낸다.<sup>19</sup> 이 세 사람 모두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는다.

## (2) 다윗과 메랍과 미갈(18:17-29)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그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17:25).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하려고 다윗에게 그의 딸 장녀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미천한 신분으로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윗에게 메랍을 주어야 할 시기에 사울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은 자신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구약성서에서 아가서를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표시한 유일한 예이다. 사울은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몰아 죽게 할 요량으로 미갈과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던 다윗은 그 조건을 충족시켰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 다윗의 아내로서 미갈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의사에 반대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창문에 밧줄을 매어 다윗을 탈출시키고 생명을 구한다.<sup>20</sup>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보상으로 그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울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다. 어쨌든 딸을 주

19 하임 엔젤은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보라. Hayyim Angel, "When Love and Politics Mix: David and His Relationships with Saul, Jonathan, and Michal," *JBQ* 40.1(2012), 41-51.

20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모세와 다윗은 모두 왕의 공주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바로의 딸이 모세의 생명을 구했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목숨을 구했다. 이것은 위의 각주 8)의 김재구의 논문에서 주장한 대로 '출애굽의 전형적인 모델'의 추가적인 예가 된다.

겠다는 사울의 약속(17:25)은 이루어졌다. 왕의 사위가 된 것은 다윗 왕권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한 예가 된다. 다윗은 부와 가문의 위상상승은 여전히 이루지 못한 채 남아 있다.

##### 5) 이새의 아들로서의 다윗(20:24-31; 22:7-10)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요나단을 통해 전달받고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한 후 떠난다. 사울은 일상적인 식사에 다윗이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한다. 이튿날에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의 소식을 물으면서 ‘이새의 아들’로 칭한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가족의 일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둘러댔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부르면서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한다(20:30-31).<sup>21</sup> 사울은 요나단에게조차 단창으로 죽이려 하였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의지를 확인하고, 다윗에 대해 슬퍼하였다(20:32-33). 사울은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다윗을 세 번(20:27, 30, 31)이나 ‘이새의 아들’로 부른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20:27b)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20:30b)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20:31a)

21 이 과정에서 사울은 요나단을 자기의 아들로 부르지 않는다. 대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으로 부르며 요나단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다.

이 호칭은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되었다(17:58). 이제 이 호칭은 사울이 다윗을 경멸하면서 자신과의 거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다윗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려 했던 사울이 심리적 기대를 포기할 때 ‘이새의 아들’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울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이새의 아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대비시킨다. 이 용어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을 비하하는 의미로 ‘이새의 아들’을 두 번(22:7, 8) 사용한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22:7b)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22:8a)

이에 사울의 편이었던 에돔 사람 도역이 사울의 표현을 이어받아 ‘이새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이 뉘에 출현했다는 사실을 일러바친다.

그 때에 에돔 사람 도역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뉘에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22:9)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과정에서 사울의 입에서 나온 다윗에 대한 호칭은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다. 이 호칭은 17:55-58에서 제기되었던 누구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대해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변했던 다윗을 조롱하고 반감을 표시한 사울의 감정을 나타낸다.

www.kci.go.kr

## 6) 사울의 아들로서의 다윗(24-26장)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 들염소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화장실을 가기 위해 굴에 들어갔다. 그 굴속에 있던 다윗이 사울의 겹옷 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면 사울을 굴 밖으로 내보낸 뒤 따라가 '내 주 왕이여'라고 외쳐 불렀다(24:8). 다윗은 자신이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해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직접 이야기한다. 이어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로 부른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24:11a)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24:8)이라고 부른 후 처음으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다. 다윗은 처음으로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호칭은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적 형제 관계를 맺은 것과 미갈의 남편, 즉 왕의 사위로서의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아울러 '이새의 아들'로서의 다윗에서 '사울의 아들'로서의 다윗을 고백한 것이다. 물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나단과 미갈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심리적 친밀감의 표현으로서 사울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으로 부르며 화답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24:16)

사울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며 축복을 기원한다. 아울러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다윗이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자, 사울은 갈등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왕권이 다윗에게로 갈 것을 알고 그 왕권을 인정한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건고히 설 것을 아노니(24:20)

26장에서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십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알려준다(26:1). 이에 사울과 군사들이 광야로 나갔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이 머무는 곳에 이르렀다. 사울과 그 군대는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명령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칠 것이며 죽을 날이 되어 죽든지 혹은 전장에서 죽을 것이므로, 사울의 머리 곁에 놓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 다윗은 나와서 먼 산꼭대기에서 아브넬의 무능과 무책임을 책망하며 외쳤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그것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고 말한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나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26:17)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손에 어떠한 악도 없다며 무고함을 역설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책망한다. 자신은 메추라기와 벼룩에 불과한 존재라며 항변한다. 다윗의 충심어린 말은 사울로 하여금 말을 잃게 한다. 이에 사울이 말한다.

www.kci.go.kr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  
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  
리라(26:21a).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인정하며, 다시 한번 다윗을 ‘내 아들  
다윗’으로 부르며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다윗은 자  
신이 가져온 사울의 창을 돌려보내고 여호와께서 공의와 진실에 따라  
값을 것을 상기시킨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  
음을 사울에게 설교하며,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사울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말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26:25a)

사울은 세 번째로 다윗을 ‘내 아들’로 부르며 축복과 성공을 기원한  
다.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대면은 이 장면이 마지막이다. 내려티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고 서술한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26:10)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한다(31장).

### 3. 이새의 아들인가? 사울의 아들인가? 사울과 다윗 내려티브 구도에서 본 모순과 갈등

내러티브에서 구도(plot)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연속되는 이야기의 뼈대를 나타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의하

www.kci.go.kr

면 작품의 구도는 시작, 중간, 결말을 이야기한다. 또는 기-승-전-결의 4구도 혹은 도입-갈등-전개-절정-대단원의 5구도를 도입하기도 한다.<sup>23</sup> 이 글에서는 사무엘상 16-26장의 흐름을 5구도에 따라 사울과 다윗의 내러티브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도입(16장)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사무엘이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발생한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울은 모른 채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독자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왕권을 둘러싼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러티브는 사무엘이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 여호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가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된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들어오는 기회가 열렸고, 사울과 다윗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어떤 갈등 관계가 없다.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이새의 아들임을 인정한다.

### 2) 갈등(17:55-58)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거둔다. 다윗은 세 차례나 누구의 아들이냐고 질문한다. 이 질문은 16:14-23과 모순이다. 사울은 다윗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로 나온다. 이 본문에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문인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임을 바라는 사울의 감추어진 욕망을 드

---

23 유윤중, “이야기 연구방법의 역사, 이론, 실제: 창 18:1-15의 분석,” 「복음과 신학」 12(2010), 42-70.

러내며, 이새의 아들 다윗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다윗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사울과의 갈등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한다. 아울러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질문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암시한다. 여호와와 함께 하는 다윗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의 대명사인 나발에게도 발견된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25:10)

### 3) 전개(18-23장)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의 전개는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윗을 둘러싸고 사울 집안은 양분된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다윗을 보호하려는 요나단과 미갈과의 새로운 갈등을 보여준다. 첫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두 번이나 피하였다(18:11). 사울은 다윗을 그의 곁에서 떠나 천부장으로 삼아 전장으로 내몰았으나 실패한다. 자신의 딸 메랍을 미끼로 블레셋과의 전투로 내몰고자 하였으나 다윗의 거부로 실패한다. 사울은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자 미갈을 미끼로 블레셋과의 전투로 내몰아 죽게 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200개를 가져와 왕의 사위가 되었다(18장).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요나단의 설득으로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 사울 곁에 있었다. 그러나 악령에 의하여 사울은 다시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

려 하였으나 피하여 집으로 갔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다윗이 창문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다.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갔다. 다윗이 라마나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군사를 파견하였다. 하지만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세 번 군사들을 보냈으나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사울도 왔지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벗은 몸으로 누워있었다(19장).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요나단은 식탁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사울은 다윗 편을 드는 요나단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한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20:31)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자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의 무고를 변호한다. 이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다. 사울과 요나단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에 다윗과 요나단은 세 번 절한 후에 요나단은 다윗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너와 너 사이,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20:14-16). 이후 십 광야에서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23:17)

요나단이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는 말은 사울이 다윗의

www.kci.go.kr

왕권을 인정한다는 최초의 선언이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sup>24</sup>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중재자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와 질투를 줄이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안내한다. 그 결과 다윗과 요나단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 사이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4) 결정(24:1-26:25a)

사무엘상 24-26장은 다윗의 광야 경험(21-29장) 중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마지막이자 극적인 장면으로 내러티브의 절정을 이룬다. 왕권을 둘러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지만 궁극적으로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후 광야 생활 중 미디안 족속을 비롯한 많은 족속에 쫓겼던 것처럼,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광야의 족속들에 쫓긴다.<sup>25</sup> 다윗은 놉(21:1-9), 가드(21:10-15), 아들람(22:1-2), 모압의 미스베(22:3), 헤렛수풀(22:5), 그 일라(23:1-14), 십 광야(23:15-23), 마온 광야 아라바(23:24-28)를 거쳐 엔게디 광야의 요새에 머물렀다(23:29). 24장의 장면은 유대 광야의 엔게디이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그 동굴로 들어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걸옷 자락을 베었다. 다윗은 사울을 불러 자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었다고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하였다.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여’(24:11)라고 부른다. 17:55-58에서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한다. 사울은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했으나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24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164.

25 Bergen, *I, 2 Samuel*, 220.

라고 대답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대하여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24:16)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호칭에 상응하는 답변을 한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나오는 첫 장면이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자신의 학대를 인정하고 다윗의 선행을 칭찬하며 다윗이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고 고백한다(24:18-20).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제 알고 인정한다. 이것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다윗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20:31a). 사울은 여호와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아들로 들어오기를 원하여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로 명성을 높이는 다윗에 대해 자신의 자녀인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의 편에 서자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대적인 사울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자 자신의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로 인하여 굳건하게 될 것을 안다고 고백하였다.

25장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는 나발과 다윗이 누구인지 아는 아비가일 사이의 대조가 주된 내용이다. 다윗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나발은 다윗을 푸대접하여 족속 전체를 위기를 몰아넣었다. 반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아는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14회)로 부르며 다윗을 대접하여 피의 복수를 막았다.<sup>26</sup>

26 ‘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아돈’은 사무엘상에서 38회 사용된다. 그 가운데 약 50%인

26장에서 사울은 다윗이 십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군대와 함께 다윗을 찾아 나섰다. 다윗은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으나, 몰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면서 아브넬을 불러 직무를 게을리한 데 대해 책망하였다. 그 목소리가 다윗임을 알고 사울은 잠에서 깨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른다(26:17). 다윗이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26:21). 사울은 다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 다윗에게 복을 빌어준다(26:25).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세 번이나 부른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한다.

#### 5) 대단원 (26:25b)

사울과 다윗이 극적으로 화해한 후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간다. 이 표현은 두 사람의 화해이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양도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아니었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할 뿐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다. 다윗이 가드에 있다는 전갈을 받았으나 사울은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다(27:4).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다윗을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불렀다(삼하 1:17-26). 그 애가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두 영웅의 죽음을 슬퍼하며 운다. 거기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나의 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형제적 감정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로서의 요나단의 자리를 대치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사울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임을 암시한다.

---

18회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온다. 그 중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인 24-31절에 14회 나온다. 해밀턴, 「역사서 개론」, 365.

## 4.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의 문학·신학적 의미

### 1) 문학적 의미

17:25에서 사울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였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 이 세 가지의 약속 중 사울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사울이 맺은 이 말은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복선(foreshadowing)으로 기능한다. 특히 아버지의 집의 위상을 높이게 하겠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18:23b)고 고백한 다윗의 집안이 상승할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자신이 맺은 말에 의하여 이새의 아들이라고 경멸적 용어를 사용한 사울이 그 이새의 아들에 의하여 뒤집히게 되는 아이러니(irony)를 형성한다. 왕위를 가졌던 ‘기스의 아들’ 사울은 자신이 맺은 약속에 의하여 자신이 업신여겼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17:55-58에서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의 아들이냐를 세 차례나 질문한다. 이에 대해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를 선언한다. 이 장면은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 내러티브의 구도에서 보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능한다. 다윗이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상황에서 사울은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자 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거부한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은 사울의 자녀인 요나단과 다윗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더 복잡하게 전개된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매우 각

www.kci.go.kr

별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역할로 나온다. 요나단은 다윗과 형제의 언약을 체결하였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사울의 사위가 된다. 이 사실은 17:25에서 사울이 약속한 보상 중 유일하게 허용한 것이 된다. 다윗이 요나단과 형제의 언약을 체결하고, 미갈과 결혼한 것은 다윗이 사실상 사울의 아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울과 다윗 갈등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24장과 26장에 걸쳐 2회 나온다.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결정적 기회를 잡았지만 죽이지 않는다.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는 않았다는 상징적 표시만 남긴다. 유사한 주제로 구성된 24장과 26장과의 관계는 다양한 이론만 제시될 뿐 확실한 것은 없다.<sup>27</sup> 구약성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자주 나온다.<sup>28</sup>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화해된 사건이 두 번 나오는 것은 확실함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것은 사울의 갈등 해소가 전략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르그만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sup>29</sup>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러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로 부름으로써 17:55-58에서 제기되었던 ‘누구의 아들이냐’는 사울의 소망이 결국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윗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주제이다. 17:55-58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고 ‘누구의 아들이

27 논쟁의 핵심은 단일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인지, 두 개의 독립된 이야기가 따로 전해져오다 합해졌는지에 있다. 다음을 보라. Robert P. Gordon, "David's Rise and Saul's Demise: Narrative Analogy in 1 Samuel 24-26," *Tyndale Bulletin* 31(1980), 40-41.

28 예를 들어 창조에 관한 두 개의 이야기(창 1:1-2:4a; 2:4b-7), 두 개의 율법(언약법전과 신명기 법전), 두 개의 역사서(신명기 및 역대기) 등이 있다. 요셉 이야기에 나타나는 꿈도 항상 쌍으로 나온다(창 37:5-11; 40:1-8; 41:1-8).

29 Brueggemann, "Narrative Intentionality in 1 Samuel 29," 21-35.

냐'고 질문했던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요나단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아본 자로 나온다. 따라서 사울은 어리석은 자이며 요나단은 지혜로운 자를 나타낸다.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뻔하다가 요나단의 지혜로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하여 자신의 집안과 후손을 구한다. 25장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발과 다윗 앞에 자신을 종으로 부르며 다윗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아버가일이 등장한다. 나발과 아버가일의 대비는 사울과 요나단의 대비를 드러낸다.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나발이 집안을 위기로 몰고 갔지만, 다윗이 누구인지를 아는 아버가일의 지혜로 자신의 집안을 구한다.

## 2) 신학적 의미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여호와가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였다는 것이다(16:18; 18:12, 14, 28). 사울 또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는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한다(17:37). 여호와가 함께하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버림을 받은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요나단 또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축원한다(20:13). 사울은 현재 왕이지만 여호와가 버린 자이고, 다윗은 현재 미미한 자이지만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은 자이다. 사울은 과거이고, 다윗은 미래이다. 그러므로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자로 항상 승리한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www.kci.go.kr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규범과 규칙이 있는 갈등이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는 뜻을 끝까지 견지한다.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24:5-6)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직접 죽이는 것은 여호와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sup>30</sup> 사울은 사무엘에 의하여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10:1). 다윗은 자신은 물론 그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와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여호와께서 그를 칠 것이라고 금지하였다(26:9-10).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대상 16:22; 시 105:15)라며 그의 신앙을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고백한다. 사울과의 갈등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와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자로 나온다. 다윗의 삶이 철저히 여호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윗에 대한 아비가일의 고백에 잘 드러나 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만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

---

30 사무엘 상에서 여호와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2:10; 12:3, 5; 16:6; 24:6(x2), 10; 26:9, 11, 26, 23)는 ① 야웨의 전쟁을 수행하며, ② 그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기준은 거의 완벽하며, ③ 불가침의 사람으로 나온다. Greg Goswell, “The Lord’s Anointed in the Book of Samuel,” *WTJ* 82 (2020), 241-254. 이 가운데 대부분은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의 사울’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나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  
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  
리이다(25:28-29).

## 5. 맺는말

사무엘상 17:55-58에서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의 아들이냐'고 세 차례 질문하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변한다. 이것은 이미 다윗과의 만남을 증거하는 이전의 본문들과 모순된다. 이 모순 관계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해법 가운데 이 글은 풀진과 로튼이 제기했던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싶어 한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인 사무엘상 16-26장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17:55-58이 갈등과 화해의 구도로 기능하는 데 핵심적인 본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사울의 아들임을 거부함으로써 다윗은 사울과 갈등을 일으켰고, 그 갈등은 마침내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며 해소된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미갈을 통하여 사울의 아들이 되어 가는 모습이 그려지며, 사울은 다윗을 줄곧 이새의 아들을 경멸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대한 조롱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슈퍼스타로 등장한 후 사울은 왕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여호와는 철저하게 다윗과 함께한다. 다윗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신앙적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로 나온다.

사울과 다윗은 마침내 화해한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

www.kci.go.kr

을 내놓지도 않았고, 다윗도 왕권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 여호와와의 뜻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울과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화해하지만, 왕권은 결국 다윗에게로 간다. 사무엘상 16-26장의 갈등과 화해의 내러티브는 신명기 역사서 내에 존재한다. 신명기 역사서 내에서 사울과 다윗의 갈등과 화해의 내러티브의 의미는 추가로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 참고문헌

- 강사문, 「사무엘상」,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김재구,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사건(삼상 17:55-58)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 「구약논단」 39(2011), 59-81.
- 유윤중, “이야기 연구방법의 역사, 이론, 실제: 창 18:1-15의 분석,” 「복음과 신학」 12(2010), 42-70.
- 한사무엘, “사무엘서에 나타난 야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구약논단」 22.3(2016), 137-166.
- Angel, Hayyim, “When Love and Politics Mix: David and His Relationships with Saul, Jonathan, and Michal,” *JBQ* 40.1 (2012), 41-51.
- Brueggemann, “Narrative Intentionality in 1 Samuel 29,” *JSOT* 43 (1989), 21-35.
- Brueggemann, Walter,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rueggemann, Walter, “Narrative Coherence and Theological Intentionality in 1 Samuel 18,” *CBQ* 55(1993), 225-43.
- Gordon, R. P., “David’s Rise and Saul’s Demise: Narrative Analogy in 1 Samuel 24-26,” *Tyndale Bulletin* 31(1980), 37-64.
- Gordon, R. P., *I & II Samue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6.
- Goswell, Greg, “The Lord’s Anointed in the Book of Samuel,” *WTJ* 82 (2020), 241-254.
- Hamilton, Victor, 「역사서 개론」.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 Jamieson, Robert, *et al*, *Jamieson, Fausset, and Brown’s Commentary*. Grand Rapids, MI;

- Zondervan, 1961.
- Klein, Ralph W., *I Samuel*, WBC 10; Waco, TX: Word Books, 1983.
- Lawton, Robert B., "Saul, Jonathan and 'Son of Jesse'," *JSOT* 58 (1993), 35-46.
- North, R., "David's Rise: Sacral, Military or Psychiatric?," *Biblica* 63 (1982), 524-44.
- Polzin, R.,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0.
- Rudman, D., "The Commissioning Stories of Saul and David as Theological Allegory," *VT* 50(2000), 519-530.
- Sternberg, M.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 Tsumura, D. Toshio, *The First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 Wong, G. C. I., "Who Loved Whom? A Note on I Samuel 16:21," *VT* 47 (1997), 554-556.

#### 검색어

사울과 다윗, 내러티브 비평, 사무엘상 16-26장, 이새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

[ ABSTRACT ]

**Son of Jesse? Son of Saul?:  
1 Samuel 17:55-58 in a Conflict Narrative of Saul  
and David(1 Sam 16-26)**

Yoon-Jong Yoo  
Pyeongtaek University

It has well been known that 1 Samuel 17:55-58 is treated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verses in the Bible, because the verses contradict with earlier verses (16:14-23; 17:15, 31-40) and later verses (24:11, 16; 26:17, 21, 25). There have been many solutions proposed, but they are far from satisfactory. Among many scholarly solutions, I will develop the interpretation of Polzin, Lawton, and Jae Gu Kim. They argue that Saul's question 'whose son is' expresses Saul's wishing to take David as his son and David's rejecting answer that 'I am the son of your servant Jesse of Bethlehem' functions a trigger of conflict between Saul and David. In this paper, I pursue to solve the contradictory matter contained in 1 Samuel 17:55-58 with illustrating the role of the verses by narrative criticism.

In 1 Samuel 16-26, Saul's promise of reward (17:25) to the man who kills Goliath plays a role of foreshadowing of conflict between Saul and David. Saul did not keep the promise, but everything that he promised is achieved. Saul's frequent uses of 'son of Jesse' (20:27, 30, 31; 22:7, 8; 22:9) instead of 'David' reflect Saul's taunting attitude to David's confession of 'son of Jesse.' In final section of Saul and David's conflict, David calls Saul as 'my father' (24:11). In reply, Saul calls David 'my son

www.kci.go.kr

David' (24:16; 26:17, 21, 25).

I analyze the plot of conflict narrative of Saul and David in five stages: introduction (ch. 16), struggle (17:55-58), development (chs. 18-23), climax (24:1-26:25a), and denouement (26:25b).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flict formed in 17:55-58 has been dissolved in chapters 24 and 26 by David's calling 'my father' and Saul's calling 'my son David.' It is also noteworthy that Jonathan and Michal play an important role as mediators trying to soften Saul's hostility to David. It is plausible to posit that David could confess Saul as 'my father' through Jonathan and Michal's favor and love to David. In this narrative, the motif of 'knowing who David is' are very crucial in interpreting who YHWH approves. Saul do not know who David is at the beginning, but he could dissolve the conflict after knowing who David is and approving that YHWH is with David. While dissolving the conflict between Saul and David, it is revealed that David was supported by YHWH and David tried to keep 'the principle of YHWH's anointed as inviolate.' In sum, it is notable that by YHWH's support and David's innocence to Saul's death, David's legitimacy to kingship could be vindicated.

#### key words

Saul and David, Narrative Criticism, 1 Samuel 16-26, Son of Jesse, Jonathan and Michal

투고일: 2023년 01월 25일

심사일: 2023년 0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2월 16일

www.kci.go.kr